

오랫동안 기다린 포토그래피 어워드와 여성 피프티 패덤즈 우승자를 공개하다

2021 년 6 월, 블랑팡은 오션노그래픽 매거진(*Oceanographic Magazine*), 오션 포토그래피 어워드(OPA)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블랑팡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여성 피프티 패덤즈(Female Fifty Fathoms, FFF) 어워드를 마련해 여성들이 바다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도록 독려했다. 대회 주최측과 블랑팡은 9 월 16 일 목요일 블랑팡 런던 부티크에서 열린 이벤트에서 우승자를 공개했다. 10 월 20 일까지 본드 스트리트 11 번가에서 열리게 될 팝업 전시도 함께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9 월 18 일에는 바다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지도를 고취하고자 템즈 강변 퀸스워크(Queen's Walk)를 따라 야외 갤러리를 열고 대중에게 수상작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블랑팡과 OPA 대회 간의 파트너십은 해양 보호를 위한 블랑팡의 모든 행동을 아우르는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블랑팡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 탐험과 해양 보존을 지향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미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지며 전 세계 해양 보호 구역 표면을 4 백만 km²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블랑팡은 공동의 협업 없이는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없었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해양의 아름다움과 해양 보존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수중 사진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양이 마주한 많은 위험 요소뿐 아니라 해양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오션 포토그래피 어워드는 이상적인 파트너인 동시에 블랑팡이 이전에 수행한 다양한 사진 및 예술 관련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표적인 예로 수중 포토그래퍼에게 표현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동시에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본 수중 세계의 다양한 측면을 탐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발간하는 *에디션 피프티 패덤즈(Edition Fifty Fathoms, 2008-2020 년)*를 들 수 있다.

OPA 의 2021 년 에디션은 해양 커뮤니티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3,000 건이 넘는 출품으로 이어졌다. OPA 를 주최하는 해양 보존 자선 단체 씨레거시(SeaLegacy) 멤버와 전문 포토그래퍼, 영상 제작자로 이뤄진 심사위원들이 2021 년 올해의 오션 포토그래퍼(Ocean Photographer of the Year™) 상을 비롯해 기존의 여섯 카테고리별 우승자를 선정했다.

어워드의 전체 수상자는 글래스피쉬 무리 속 아름다우면서 감동적이기까지 한 바다 거북의 모습을 촬영한 호주 기반의 재능있는 포토그래퍼 에이미 잔(Aimee Jan)으로 결정되었다.

올해 OPA 에서는 기존 부문 외에 “여성 피프티 패덤즈 어워드(FFF)”라는 이름의 새로운 카테고리에서 포토그래퍼를 선정했다. 그들이 영감이 되어준 누군가에 의해 후보로 지명된 경쟁 포토그래퍼들을 블랑팡과 심사위원이 함께 면밀하게 심사했다. 사실 블랑팡의 대표 & CEO 마크 A. 하이에크 자신이 해양을 향한 오랜 열정을 지닌 수중 포토그래퍼이기도 하다.

100 명 이상의 후보 중에서 12 명의 결선 진출자가 선정되었고, 자신의 작품을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10 장의 해양 사진으로 이뤄진 포트폴리오를 제출했다. 포트폴리오가 수상자를 선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해양을 위해 행동하도록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선사하는 그들의 헌신과 능력에 대한 성과에도 주목했다.

FFF 상은 해양 보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 사진 작가이자 생물학 교사인 르네 카포졸라(Renee Capozzola)가 수상했다. 그녀는 수중 사진이 물 아래에 있는 마법의 세계를 밝히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녀의 작업은 종종 거북이와 상어에 초점이 맞춰진다. 심사위원과 블랑팡의 마음을 특히 사로잡은 그녀의 포트폴리오 속 “샤키 선셋(Sharky Sunset)”은 건강한 해양 생태계의 신호로 여겨지는 종인 흑기흉상어(blacktip reef shark, *Carcharhinus melanopterus*)가 모습을 드러낸 하늘과 바다를 보여준다.

르네 카포졸라에게는 블랑팡 피프티 패덤즈 컬렉션의 새로운 모델 중 첫 제품이 수여되었다. 블루 컬러 워치에는 시리얼 넘버 1 이, 그리고 케이스에는 “FFF Award 2021”이 인그레이빙으로 새겨져 있다.

블랑팡이 1953 년 소개한 피프티 패덤즈는 세계 최초의 모던 다이버 워치다. 블랑팡의 공동 CEO 이자 열렬한 다이빙 애호가인 장-자크 피슈테르에 의해 탄생했다. 잠수 시간에 있어 특히 남성을 앞서는 여성 잠수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지니고 있던 피슈테르는 수중 세계 탐험을 위한 믿을 수 있는 타임키퍼 장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링크 및 정보:

- 모든 수상작 및 결선 진출작, 우승자와 심사위원의 이름을 확인하려면 www.oceanphotographyawards.com.
- 블랑팡 오션 커밋먼트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다면 www.blancpain-ocean-commitment.com.
- 피프티 패덤즈 컬렉션에 대해 알고 싶다면 www.blancpain.com/fr/collection-fifty-fathoms.